

한국 여자골프 부활할까



▲ 텍사스주 월드 아메리칸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어센던트에서 우승한 김효주가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한국 여자 골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무대에서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LPGA 통산 5승을 기록 중이던 김효주(28)는 지난 8일 텍사스주 더폴로니의 월드 아메리칸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어센던트 LPGA (총상금 180만 달러) 대회에서 우승했다. 지난해 4월 롯데 챔피언십 이후 1년6개월만의 LPGA 투어 우승이다. 롯데 챔피언십 우승 이후 준우승만 2번 했던 김효주는 이번에는 경쟁자들의 추격을 허락하지 않았다.

김효주의 우승 1주일 전인 지난 1일에는 2020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신인상을 받은 뒤 LPGA에 도전한 신인 유해란(22)이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총상금 230만 달러)에서 데뷔 후 첫 우승을 달성했다. 지난해 LPGA 정규 투어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퀘리파이(Q) 시리즈를 1위로 통과하며 정규 투어에 입성해 20번째 출전 만이었다.

KLPGA 투어 신인왕 출신인 유해란은 역대 2명만 기록한 한미 신인왕 기록에 도전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신인상을 탄 선수는 신지애와 이정은(6등 두 명)뿐이다.

여자골프 강국 위상을 유지하던 한국은 지난해 중반부터 부진에 빠졌다. 지난해 6월 전인지가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올해 3월까지 투어 18개 대회 연속 무승에 빠졌다. 태국 선수들이 선전하면서 한국의 전성시대가 끝났다는 성급한 진단까지 나왔다.

어려운 상황에서 고진영만이 명맥을 이었다. 고진영은 손목 부상 여파 속에서도 지난 3월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무승 흐름을 끊었고 5월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 다시 우승했다.

고진영의 고군분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유해란과 김효주가 2주 연속 우승이라는 개가를 올리면서 한국 여자골프가 부활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과연 한국 여자골프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라톤 역사를 바꾼 케냐 목동



▲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2023 시카고 마라톤에서 세계 최고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케냐의 켈빈 키프텀이 케냐 국기를 펼쳐 들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염소와 양을 키우던 아프리카의 10대 소년이 엄청난 훈련량으로 자신을 단련한 뒤 세계 마라톤 역사를 다시 썼다. 케냐의 켈빈 키프텀(23)이 마라톤 풀코스(42.195km) 3번째 도전에서 세계 최고기록을 세우며 2시간 벽의 문턱까지 갔다.

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키프텀은 8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2023 시카고 마라톤'에서 풀코스를 2시간00분35초에 완주했다. 엘리우드 킵초게(38·케냐)가 지난해 9월 베를린 마라톤에서 세운 종전 세계 최고기록 2시간01분09초를 34초 당겼다.

2018년 하프마라톤으로 장거리에 입문한 키프텀은 지난해 12월 풀코스에도 도전한 이후 3번째 출전에 엄청난 기록을 작성했다. 마라톤 꿈의 기록 '서브 2' (2시간 이내 완주)를 36초 남겨둔 것이다.

키프텀을 지도한 제르베 하키지마나 코치(36)에 따르면 키프텀은 일주일에 300

km를 뛰는 극한 훈련을 펼쳤다. 하키지마나 코치는 AFP통신 인터뷰에서 "키프텀은 훈련량이 너무 많다. 그에게 '이러다가 5년 안에 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다. 남은 선수 생활을 위해서라도 훈련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키프텀은 훈련을 멈추지 않는다"며 "지난 4월 런던 마라톤을 준비하면서는 3주 동안 매주 300km 이상 달렸다. 그는 좀처럼 지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르완다 출신의 하키지마나 코치는 10년 전 케냐 체프코리오에서 키프텀을 처음 만났다. 당시 키프텀은 양과 염소를 키우는 소년이었다.

하키지마나 코치에게 발탁돼 육상 수업을 받은 키프텀은 2018년부터 하프마라톤 국제대회에 출전했다. 2021년 하키지마나 코치가 케냐에 상주하게 되면서 키프텀은 숲을 누비며 본격적인 풀코스 훈련을 했다. 2022년 12월 처음 풀코스 경기를 치른 키프텀은 약 10개월 만에 마라톤 세계 최고기록을 세웠다.

그랜드 오픈

정약국

Jung Pharmacy

각종 보험 환영(메디케어/메디케이드/HMO/PPO)

독감, RSV, 코비드
예방 접종 시작!

처방 없이 예약 없이
워크인 환영

한분 한분 친절과
정성으로 섬깁니다.

행복한 약국,
웃음이 있는 약국
건강을 생각하는 약국,
정약국입니다.

정은혜 약학 박사
(Grace Jung)

건강 상담/혈압 당뇨 측정/예방 접종/처방약 조제/무료 배달 서비스/한국약 판매/비타민/건강 보조제

정약국

714.752.6027

Open hours: 월-금 9am-6pm / 토 9am-2pm | Fax: 714.676.5508
카카오톡 ID: jungrx | 6771 Beach Blvd. Ste E, Buena Park, CA 90621

소스몰 맞은편, 명인만두 옆